

Advent Series: God For Us: Joy

Alex Lessler

Dec. 17, 2023

어드벤처 시리즈: 하나님과 함께: 기쁨

알렉스 레슬러

2023년 12월 17일

Intro: God is For Us

For 2,000 years, the church has taken time to prepare their hearts for Christmas Day. That time has been called the “Advent” season.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third week of Advent. “Advent” means “arrival,” specifically Jesus's arrival. Each week leading up to Christmas Eve, we’re looking at a different implication of the Advent story

****서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다**

2,000년 동안 교회는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은 대림절로 불립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드벤처"란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도착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매주, 어드벤처 이야기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봅니다.

What does the Arrival of Jesus mean?

Week 1 - Hope. God will fulfill his promises.

Week 2 - Peace. God is with us.

This week- Joy. God is FOR us.

So here is the proposition: The Arrival of Jesus into the world signifies that God is FOR us. This is why it is Good News. God is not angry with you. Scolding you from heaven. Rolling his eyes at your mistakes and blunders. He isn't disinterested, disengaged, and distant. He is not mean, vindictive, or finger-pointing. He does oppose sin, and it's a corrosive and destructive force in your life and our world. But he isn't against you.

No. He is wildly and relentlessly and deeply in love with you. As a Good Father loves their children, he sees all of who you are, yet he still chooses you. And he doesn't just say that.

****예수의 도착의 의미**** 예수의 도착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 ****1주 - 희망:****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 ****2주 - 평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 ****이번 주 - 기쁨:**** 제안은 예수의 도착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존재가 아니며, 하늘에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비열하거나 복수적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반대하지만 당신에게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렬하게, 끊임없이, 깊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된 아버지처럼 당신의 전부를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오한 현실입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은 언어보다 크게 보여줍니다.

In Matthew's Gospel, when the angel arrives to proclaim to Joseph and Mary the Advent of Jesus he quotes an ancient prophetic text from the book of Isaiah which says,

23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Matthew 1:23

In other words, God showed up. Ancient prophecy comes to life.

There is a big fancy theological word for this- it's called the "Incarnation." God stepped into the human story by taking on a human body. He subjects himself to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a human being while never losing even an ounce of his divinity.

The God of the universe did NOT have to prove his love for us. But He did AND at great cost of himself. And not FOR himself. What does he get out of this deal? No. It is ENTIRELY for our good from His Goodness. And so the Advent story shows us the character of God.

The God who "shows up" is the only one who can rescue you from sin, redeem you from your brokenness, and reconcile you to himself. He is the only way.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예언서를 인용하여 예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는데, 예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마태복음 1:23. 이 사건은 "성신화"라는 큰 신학적 용어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며 인간의 제약과 한계를 견디면서 그의 신성함을 한 야만만큼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했으며 그 자신에게 대한 큰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서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요. 이는 오로지 우리의 선에서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프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나타나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하고 파괴된 우리를 구속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And that is the Good News that causes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Transition: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is more in-depth.

To examine a part of the Christmas story that highlights:

1. God is FOR us and
2. The result of God's work in your life is Joy. And a joy that is like no other.

전환: 오늘은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 하나의 부분을 살펴보며

1.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며
2. 하나님의 역사 결과로 인한 기쁨. 그리고 다른 어떤 기쁨과도 다른 기쁨입니다

Luke 2 in your Bibles. 누가 복음 2장입니다.

MVMT 1: In Our Story | Luke 2:1-7

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2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3 And everyone went to their own town to register. 4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5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6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누가복음2:1-7

1.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조사를 위한 법령이 고발되었습니다.
2. (이 인구조사는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던 때에 이뤄졌습니다.)
3.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러 갔습니다.

4. 가리려는 족장과 가문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부터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나온 요셉은
5. 자신과 약혼한 막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습니다.
6.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예수의 출산 시기가 이르자,
7. 그녀는 첫아들을 낳았습니다.방이 없어서 그를 마구간에 뉘어 놓았습니다.

Luke, the author of this Gospel account, intentionally includes details about the historical setting of this story.

Why?

Well, because he isn't afraid of his claims being verified. He wants you to know that this all actually happened. As strange as it may sound, there is a breaking in of Heaven into our very familiar story.

Including these details would be akin to us saying today, "This all took place while President Biden was in office, and Tina Kotek was governor of Oregon.

It indicates a time and a space.

누가는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부러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주장이 검증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천국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개입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오늘날 "이 모든 일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일어났으며, 티나 코텍이 오리건 주지사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가르칩니다..

When you hear "Caesar," what comes to mind? 시저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Caesar, the real one, would have probably had you crucified if you had told him his legacy would be a potent combo of pepperoni pizza and typically overdressed salad.

"시저, 실제로 존재했던 그 시저, 당신이 그에게 그의 유산이 페퍼로니 피자과 과하게 드레싱된 샐러드의 강력한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Caesar Augustus- The first and (according to many) the most significant Roman Emperor (31BC - AD 14). Having replaced the republic with an imperial form of government, he expanded the empire to include the entire Mediterranean world, established the famed Pax Romana, and

ushered in the golden age of Roman literature and architecture. Augustus (which means exalted one) was a title conferred on him by the Roman senate in 27 BC.

씨저 아우구스투스 - 제1 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로마 황제 (기원전 31년 - 서기 14년). 그는 공화제를 제국제로 대체하여 제국을 전체 지중해 세계로 확장했으며, 명성 있는 팍스 로마나를 세우고 로마 문학과 건축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즉, 높아진 자)는 그에게 27 기원전에 로마 상원의 의해 부여된 칭호입니다."

If you are ever curious about where George Lucas found his inspiration for The Empire in Star Wars, read about Augustus' story.

In Rome, there is one who sits on the throne of the entire world. He is proclaimed the "exalted one," conferring not just political authority but also religious authority.

He referred to himself as "Imperator Caesar divi filius, " meaning "Commander Caesar, son of the deified one.

He initiated the Imperial Cult, so worshipping Caesar (himself) became a national religion.

Religious Nationalism is not a new thing.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제국에 영감을 얻은 곳이 궁금하다면,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로마에서는 전 세계의 왕좌에 앉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높아진 자"로 선포되어 정치적 권한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라고 부르며, 이는 "조국의 신이 된 자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제국 신덕을 시작했기 때문에 카이사르(그 자신)를 숭배하는 것이 국립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국민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Luke is SO Brilliant. ALL of this would have been known information about Caesar. The Imperial propaganda machine was alive and well.

While today we know Caesar as a salad or a \$5 pepperoni pizza

There was one day when his fame was spread all over the world. He was known as...

King of the Eternal Empire of Rome & Son of god (the deified one)"

Without saying much, Luke says everything.

Jesus, the true King of the Universe and heir of Heaven, the true Son of God, shows up in our story.

누가는 정말로 명석합니다. 시저에 관한 이 모든 정보는 알려진 정보였을 것입니다. 제국의 선전 기계는 잘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저를 샐러드나 5달러짜리 페퍼로니 피자라고 알고 있지만 한때 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로마의 영원한 제국의 왕 및 신의 아들 (신격화된 자)"누가는 말합니다. 온 우주의 참 왕이자 천국의 상속자, 참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우리 이야기에 나타나셨습니다.

Augustus was born into opportunity. He came from a family that was connected deeply to the Roman powers. He was the adopted great-nephew of Julius Caesar and heir of his estate and political power of Caesar. His arrival on the scene was chaos: backstabbing, civil wars, consolidation of power, elimination of political rivals. Take and keep power by all means. He would be familiar with the palace and the political forum.

And then there is Jesus.

Luke points out that Mary and Joseph, by Augustus' decree, must return to their ancestral hometown for a census. Why? Because Ceasar said so. "Go home, register so that you can pay more taxes."

This is a display of the might and power of Rome. They speak, and everyone listens.

But by doing so, Mary and Joseph go to the town of Bethlehem- a place of former kings.

Bethlehem is the home of the former king of Israel, David.

아우구스투스는 기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깊게 연결된 가족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는 줄리우스 시저의 입양 대조손자이자 시저의 재산과 정치적 권력의 상속자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배신, 내전, 권력의 통합, 정치적 경쟁자의 제거.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을 가져오고 유지하기 등. 그는 아마궁전과 정치적 말싸움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메리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 센서스를 위해 등록해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저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힘과 권력의 진시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명령하면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메리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 과거 왕들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역대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What a scene set for such an incredible story. 실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로마의 제국적 권력,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은 예수의 출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위한 강렬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2 Kings who come into the world in radically different ways. 두사람의 왕은,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One born into pomp and circumstance. From a royal line that launched him into the palace, power, and the political arena. The other was born in a stable. A trough for a bed. To two poor minority nobodies in a small corner of that other king's empire.

If you wanted to make up a story of a king from heaven coming into the world, which one would you choos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 am so willing to trust that this story is true. If you made it up, nobody would believe it. You would never script it this way. And yet, cemented in the history of the time of Augustus and Quirinius, you have this story in a backwater district of Rome that would forever change the world.

The claim is that the true King of Heaven has come into our story.

He comes in the most relatable way. He comes as one of us. Someone we can identify with.

This is one of the most astounding realities of the Christmas story.

하나는 환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실 가계에서 태어나 궁전, 권력 및 정치의 무대로 이끈 왕. 다른 하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대 대신 먹이통에서. 그의 부모는 다른 왕의 제국의 작은 구석에서 온 가난한 소수 민족입니다.

하늘에서 온 왕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고안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렇게 스크립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 와 퀴리니우스 시대의 역사에 고정된 채, 로마의 혼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세계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명백한 주장은 하늘의 참 왕이 우리 이야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공감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사실중 하나입니다.

Of all the ways he would show up in the story, he chooses the most humble.

"Immanuel," or God is with us, literally means that. All of us. And He is with us because because He is FOR us. 가능한 모든 방법 중에서, 그는 가장 겸손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Transition: This Christmas, we reflect on this truth: He is the God that shows up, sometimes in the most unexpected ways. We reflect on this truth, that while He may arrive in unexpected ways that can be hard to recognize, they are also the ways we most need him to show up.

전환: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그는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He did it then. He does it now.

그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Advent is full of surprises. 어드벤프트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MVMT 2: Surprised Shepherds | Luke 2:8-15 움직임 2: 놀란 양치기들 | 누가복음 2:8-15
Back to Luke 2, starting at verse 8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다시 봅니다.

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15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Luke 2:8-15 **8** 그 지방에는 근처의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10**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시다. **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너희가 말로 싸인 기절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리라." **13** 그 때 천군의 많은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14** "최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땅에서는 그분의 은혜가 누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으리로다."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동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 -
누가복음 2:8-15

There's nothing more mundane and ordinary in the first century than the profession of a shepherd. This is astounding, and again, if you were making up a story, this would be the most unlikely group of people you would ever include. Their testimony would hold little value to the world around them. There's no advantage for Luke to have this story included in this Gospel account unless, of course, it is, in fact, true.

Surprise.

A host of spiritual beings arrive and pronounce that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human history is about to unfold. This is the message to some blue-collar workers in a field in Bethlehem.

God shows up in an extraordinary way to ordinary people.

Not in the capital of the Empire in Rome

Not in the epicenter of Jewish worship in Jerusalem.

As you will see, the people in those spaces will not be left out. (Good News/Great Joy for ALL)

But he arrives to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보다 더 평범하고 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포함할 가장 불가능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주변 세계에게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누가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인 경우입니다.

놀랍. 예고되지 않은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질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한 들에서 몇몇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예배 중심지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모든 이에겐 큰 기쁨) 그러나 그는 당신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Surprise.

Could you imagine how seen these shepherds must have felt? Like, of all people in the world, the God of the universe sees them?

놀랍.이 목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도, 우주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신다는 느낌이었을까요?

This is true of us, too. He is not so busy running the universe that he cannot meet you at your most profound need. Even if you think you are somehow not important enough to be noticed, valued, or seen, the Advent story is a surprise- he is for you, too! In fact, he had a unique plan and purpose for these shepherds, and their story would be immortalized in human history.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우주를 운영하는 데 너무 바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필요에 찾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충분히 주목받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강림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 그는 여러분을 위해 왔습니다! 사실, 그는 이 목자들을 위한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Wild!

But as surprising as the appearance to the shepherds is, the message is even more so: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Luke 2:10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Heaven's first public statement about the arrival of Jesus is that Good News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Let's focus on the Good News part.

I recently went to the Civil War football game with a friend. As we were walking in, there were men at every entrance with 12-foot signs and bullhorns shouting at every person coming into the game that they were all going to Hell if they did not repent. The signs were full of the typical sins you see on them. Everyone was trying to ignore them. Wide berths. Some people mocked them. Most just tuned them out.

I completely agree that sin separates us from God. Both now and in the age to come. The Advent of Jesus is about your rescue from Sin and death. The gospel is not some passive form of nicety that is a false politeness to people while they persist in their sin and brokenness. A Savior is born to SAVE YOU.

하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만큼 놀라운 것은, 메시지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을 줄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 누가복음 2:10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예수의 도래에 대한 첫 공식 발표로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에 중점을 둡시다.

근래에 친구와 함께 시빌 위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입구로 걸어갈 때마다 12피트 길이의 표지판과 확성기를 든 남자들이 모든 경기 관중들에게 소리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 둘러보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현재와 차후 시대 모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강림은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상처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짓된 예의로 인해 기만되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태어나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But as I walked past the blaring bullhorn, I just kept hearing this quiet whisper: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And I wondered... What if these guys put that on their boards instead? What if Luke 2:10, and they took a page out of Heaven's book and pronounced: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the Shepherds? They became curious. "Let's go look into this!" Should we recapture the methodology of heaven? 나는 그 큰 확성기였을 지나가며 계속해서 이 속삭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대신에 그것을 표지판에 썼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가복음 2:10을 그들이 하늘의 책에서 물어내어 "너희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노라.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했다면 어떨까요?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러 가자!"

우리는 하늘의 방법을 다시 채택해야 할까요?

Transition:

When CS Lewis wrote his autobiography of his journey from Atheism to Faith in Jesus, he titled it Surprised by Joy

Why? Because it was his experience with heavenly Joy. Joy from God and God alone changed his heart. It wasn't a rational argument, it wasn't an intellectual idea, it wasn't an awareness of guilt and shame. It was Joy- as Augustine said in Confessions,

“Our hearts are restless o God,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Thee.” - St. Augustine

Like the shepherds, the Advent story taps into the deepest longing of every human heart to lean in and say- come, let's go find out what this is all about!?

Something deep, hidden, longing in your hearts, in theirs, finds its rest in the arrival of Jesus in your lives.

It is the surprising Joy that Lewis talks about. Beckoning to you, come to the manger, find out what this whole thing means. It is good news, and you will experience the great Joy you yearn for.

C.S. Lewis가 그의 무신론에서 예수 믿음으로의 여정을 쓴 자서전을 쓸 때, 그는 그것을 "놀라운 기쁨에 놀란 것"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기쁨과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논쟁이 아니었고, 지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었으며, 죄와 수치의 인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서전 '고백'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여, 주 안에서 안식처를 찾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목자들처럼 각 인간의 마음의 깊은 갈망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할 때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 와서, 가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도착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깊게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Lewis가 얘기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며, 동물사육지로 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MVMT 3: Surprised by Joy

CS Lewis - Surprised by Joy

Lewis gives a stunning definition of the “Joy from Heaven.”

“I call it Joy... As I stood beside a flowering currant bush on a summer day there suddenly arose in me without warning, and as if from a depth not of years but of centuries, the memory of that earlier morning at the Old House when my brother had brought his toy garden into the nursery. It is difficult to find words strong enough for the sensation which came over me; Milton's 'enormous bliss' of Eden (giving the full, ancient meaning to 'enormous') comes somewhere near it. It was a sensation, of course, of desire; but desire for what?...Before I knew what I desired, the desire itself was gone, the whole glimpse... withdrawn, the world turned commonplace again, or only stirred by a longing for the longing that had just ceased... In a sense the central story of my life is about nothing else... The quality common to the three experiences... is that of an unsatisfied desire which is itself more desirable than any other satisfaction. I call it Joy, which is here a technical term and must be sharply distinguished both from Happiness and Pleasure. Joy (in my sense) has indeed one characteristic, and one only, in common with them; the fact that anyone who has experienced it will want it again... I doubt whether anyone who has tasted it would ever, if both were in his power, exchange it for all the pleasures in the world. But then Joy is never in our power and Pleasure often is. — C.S. Lewis, Surprised by Joy

Lewis는 "하늘의 기쁨"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여름 날에 꽃 피운 현미곡 덩불 옆에 섰을 때,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몇 년이 아니라 세기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기억이었습니다. 오래 전 오래전 올드 하우스에서 나의 형이 장난감 정원을 유아실로 가져온 아침. 나를 위해 그런 감각에 대한 충분히 강한 단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밀턴의 에덴의 '거대한 축복'이 ('거대한'에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것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물론, 그것은 욕망의 감각이었지만 무엇을 원했는지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전에 원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전체적인 시선... 끌려온, 세계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가거나 방금 멈춘 욕망을 원하게하는 소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내 삶의 핵심 이야기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세 경험에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은 '만족스럽지 않은 욕망'이자 다른 어떤 만족보다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쁨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는 기술 용어이며 행복과 즐거움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미에서 기쁨은 실제로 그들과 유일하게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 나는 그것을 맛본 사람이 세계의 모든 즐거움과 교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힘에 절대적으로 없으며 즐거움은 종종 그렇습니다." - C.S. Lewis, Surprised by Joy

“Joy is never in our power, and pleasure often is.”

He distinguishes between the happiness we can manufacture or experience and the Joy with a source entirely out of our power.

"기쁨은 절대적으로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작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완전히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기쁨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The Bible calls this Joy. And it has unique and enduring characteristics because its source is found only in God.

성경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부르며, 그 기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독특하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Biblical Joy

“Joy” in the Bible is difficult to define because words feel inadequate. They fall short. It’s like a combination of Blessedness, Happiness, pleasure, excitement, and fulfillment. But since its source is God, it is also somewhat alien to our experience here.

성경적 기쁨 성경의 "기쁨"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어가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복이자 행복이자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흥분이자 만족감의 조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스가 하나님인 경우,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다소 격리된 것입니다

Some things create all of these experiences. Experiences that are not, in and of themselves, bad.

But they can only point to a more incredible experience; they cannot embody all of what Joy is in and of themselves. 일부 사물은 이러한 경험을 모두 창출합니다. 이 경험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놀라운 경험을 가리킬 뿐이며, 그 자체로 모든 기쁨의 본질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1. Joy is a “Fruit of the Spirit.”: In Galatians, Paul says that Joy is a fruit of the Spirit.

This means that Joy’s source is God. It is something that you experience in your life as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As you walk with, talk with, and enjoy a life in communion with God, Joy will result.

“Fellowship with the Father and the Son is most vivid and sweet, and Christian joy is greatest, when the cross is heaviest.” 1 –J. I. Packer

2. Joy is not dependent on your circumstances: It is possible to simultaneously experience bottomless Joy and Great Suffering and Pain.

6 “In all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1 Peter 1:6

This is really important. In this life, we will experience pain and suffering. This is the experience of every person; it’s unavoidable. But the Good News is that you can experience Joy in your pain. There is a sustaining Joy that cannot be stolen by your circumstances. It cannot be taken away from you by anyone or anything because it comes from God and God alone. You have a power that can flow through your life.

One of the primary themes of the Apostle Paul’s letter Philippians is JOY. It’s all over the letter. And do you know where he wrote it? Prison. He had access to Joy that no power on this earth could take away from him. And as he heard about others standing firm in their faith, he experienced great Joy, even if it cost him his physical freedom.

The Joy God gives us is transcendent.

3. Joy is not seasonal: “It’s the Hap, Happiest time of the year.” For some. For others, it is an excruciating time. If Joy finds its source in God and is not dependent on your circumstances, you can also have it this holiday season. As Joy is only found in one person, Jesus. AND Joy is not found in your circumstances aside from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It is not just for some times but not for others.

Psalms 1 says that “blessed” or “happy/joyful from God” are the ones who do not walk, stand, or sit in the way of sin. But delight in the word of the LORD. Meditating on the goodness of God day and night. The result is that you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a constant source of life. You will produce fruit in season, but you will be sustained in the other seasons when you just endure loss, pain, and anticipation of spring and summer again.

1. 기쁨은 "영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교제하면 이러한 기쁨이 발생한다 **[[1]](갈라디아서 5:22-23))**.

2. 기쁨은 상황으로 부터 독립적입니다.: 기쁨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으며 고통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시험 속에서도 깊은 기쁨이 있을 수 있다 **[[2](베드로전서 1:6)]**.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경험이며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흠칠 수 없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또는 무엇에게나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바울의 빌립보서의 주제 중 하나는 기쁨이다. 편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글쓴이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입니다. 그는 이 지구의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듣자마자, 심지어 그의 육체적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초월적입니다.

3. 기쁨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올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일부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에서 비롯되고 여러분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번 휴일 시즌에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예수 그 자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의 상황에서가 아닌 예수 그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실, 고통, 봄과 여름을 기다리는 다른 계절을 건디는 동안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기쁨"은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의 말씀에 기뻐하며 낮과 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상수리나무 같아서 지속적인 생명의 근원에 심겨져 과정에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여러분은 단지 손실, 고통, 봄과 여름을 기다리는 다른 계절을 건디는 동안에도 지탱될 것입니다.

Transition: All of this can be yours...

Response:

1. You can come to Jesus- A savior has been born
2. You can have this Joy. (If you are not experiencing Joy, get some prayer. I did this week!)
3. You can be a herald of Good News of Great Joy: Writing Good News Great Joy

cards - handed at the door, stamps, and mailbox at the info center.

4. You can invite people to come and see Jesus- Invite them to C-Eve 9,11,1,5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Response:

1. 예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 구세주가 탄생했습니다.
2.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3. 여러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실 수 있습니다: Good News Great Joy 카드를 쓰기 - 문에서 전달, 우표와 정보 센터의 우편함에서.
4. 여러분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러 초대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이브 9시, 11시, 1시, 5시에 초대하십시오.

축도와 예배의 마침

Benediction + Closing

13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omans 15:13

희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5:13**